

## 당선작

김원호(우석대학교 식품생명영양학과)

### 반장갑

하늘색 반장갑에 뚫린 구멍 사이로 찬 기운이 든다.

너는 바느질에는 서툰 편이지만  
뜯어진 것들을 보면 뭐든 꿰매어 주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장갑을 살 수도 있겠지.”

그러자 너는 내게  
두 번 다시는 제 손으로 장갑에 크고 작은 구멍을 내는 일 따위를 반복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그러나 새 장갑이란 언젠간 구멍이 뚫리고 말  
구멍 없는 구멍이 난 장갑이기도 하니까……”

하긴 그런 것 같다고 너는 고개를 끄덕거린다.

“알아?  
세상의 모든 구멍들은 대체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 생겨난다고 해.”

잘못된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손가락은 꽤 낯설다.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목이 없는 티셔츠에 목을 집어넣자  
새 머리가 생겨나던 것처럼?”

너는 다시금 너의 손가락을 빼서는 알맞은 손가락의 구멍을 찾아 그것에 맞게 끼운다.

“우리 집이 아닌 그 옆의  
이웃집 현관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던 일처럼.”

나는 반장갑이 원래부터  
열 개의 뚫린 구멍을 갖는 법이며

난 그러한 반장갑의 애매성이 썩 좋다고 말했다.

“반은 장갑인데 반은 장갑이 아니래.  
참, 웃기지 않니?”

“그렇다면 우린 이걸 반장갑 대신  
반손가락이라 부르는 건 어때?”

정말,

그래도 무방한 걸까.

시절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을 거라 말하며, 우린 길을 나섰다. 한겨울에 반바지와 반장갑 차림. 원룸 앞 편의점에 잠깐잠깐 들를 땐 종종 그런 애매한 복장을 갖추기도 했던가. 우린 반쯤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란 없는 듯했고

반  
바지와

반  
장갑.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반쯤만 나인 것으로, 반쯤은 내가 아니게끔 만들어 무자비한 겨울 추위에 노출시켜 주었지.

반 정도는 내가 가끔 너일 수 있도록 애써준 것 같았다.

## 한밤의 별초

너는 사라진 것들을 두고 투명하다 말했다  
화롯가엔 온기만 남고 어른들은 어디로 갔나

불 속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자면 이따금씩 튀어 오르던 작은 검댕들

옛적에, 네 증조할머니는 가래떡을 긴 꼬치에 끼워 화로 속에 넣고 한참을 휘적이다가 이 할미에게 건네주었다,며 할머니는 네게 전했다 그리고선 묻는다, *뜨겁진 않니, 아가?* 그 아가는

어디로 갔나

천천히,  
손가락부터 움직이면 아무리 먼 기억이라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시동이 안 걸리는 제초기를 당길 때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너는 풀을 깎는다

톱날을 따라 고분고분히 무너지는 할미꽃 양지꽃 솜방망이꽃 조개나물 산민들레 쯤민들레 미나리아재비 불어오는 훈풍 따라 저 멀리로 흩어지는데 무덤은 하염없이 둥글기만 하고 둥그런 그 아래 묻혀 있는 자들이라면

천천히,  
움직일 손가락조차 삭아서  
묘지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힘들진 않니, 아가?*  
그 순간 투명하게 건네지던 그 말이 네겐  
다 식어버린 손의 체온 같아서

너는 땀을 닦는다  
손등에 맺힌 땀방울들,

이런 것까지 투명하다 일러도 될까?

잘못된 사망선고가 잦았던 더 머나먼 옛적에는, 무덤 속 관에다가 자그마한 방울 하나씩

을 매달아 두었다고, 잘못된 깨어남을 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근처를 지나가다 종소리를 듣게 되고는, 비로소 발견되기 위해서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네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너에게도

있다 아가,  
나는 너를 모르지만 너는 나를  
알게 될 테니……

당—

흐리디흐린 종소리 어렴풋이  
네 귓가에 울려 퍼지고

한참을 설화처럼 불 속에 폭 빠져 듣고 있었던  
네 얼굴은  
군밤처럼 그슬린 조상들의 초상肖像 같고

너는 투명한 것들을 비치도록 속이 환한  
고분古墳 같다 이해하는데

무덤가엔 냉기만 남고 아가들은 어디로 갔나?

## 슬픔의 슬픔

숲은 원체 말이 없었다. 말 없으므로 우물이다. 그 우물 속 동전 한 닢 던져 넣는다. 짧게 반짝임이 핑그르르, 언젠가 잠든 나의 옆얼굴로 지나갈 때, 은빛 기차 한 대가 플랫폼에 선다.

말 없는 너, 오솔길을 따라 운행한다는 기차 위로 올라탄다.

검고 마른 나뭇가지 스쳐 가며 우린, 달린다. 달리므로 휘방꾼이다. 슬쩍슬쩍 창을 통해, 한순간 소란해진 숲의 심연을 즐겨볼 때

그곳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어떤 나무 등치와 진초록 잎사귀 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분명 점차로, 곁에 앉은 서로의 표정까지도 알아보지 못할 우리가, 암흑 속에 잠겨 있는데

모든 것이 물풀처럼 일렁이고 있을 뿐, 바깥은 멀어지려는 여기로부터 추방될 줄 몰랐다. 그곳에서 거리감이란

오로지 한쪽만의 입장이었을까?

의문을 품자 곧 기차는 멈춘다. 의심하므로

달그림자다. 밤 기차 멀어져 가면 잔상은 짙다. 춥다. 있었다는 윤곽만 남고 어디로 갔나, 너는

또 무슨 마음을 지녔던가. 네 구원한 숫눈 위를 걸으며. 해 뜨면 지워질 거야, 그러니 절대 눈 감지 않기로 한다. 감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태엽인가.

추위.

굳은 나를 돌리려 하던 손. 밝네, 어렴풋하고.

고장 난 오르골처럼. 나는 네 부서질 그날을 위해 단 하나의 노래만을 품는다. 얼음. 얼음. 얼. 음. 얼. 음. 얼. 음. 짱. 짱. 그러다

쩍; 희고 참 냉담한 소리들

얼음 골 어디에선가 몸 숨긴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밝아,

따뜻하고.

이제 내가 아는 것이라면, 죄다 계곡물 아래 잠겨 버려서. 너는 모르는 것들만이 수면 위로 떠올라 내 가슴께를 툭툭 친다. 정말 모르겠으므로. 어떤 것을 모르겠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다는 듯이.

그러므로 이것 또한 내가 지닌 네 기억인 걸까?

누구도 방생한 적 없는 피라미 떼

종아리를 훑고서 간다. 너네는 어떤 감정을 타고서 이곳으로 흘러들게 된 거니. 슬픔의 슬픔이 낱아 나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본다. 물밑에서 산란하며 대를 잇고 있는 모습을, 작고 약한 것들을, 치어<sup>稚魚</sup>를.

투명한 유리 조각 같아, 내 발목에 긴 상처를 긁고 가는 꼬리를. 아. 아프다. 아프다는 감각이 내 감정과 무관하게 지느러미질하며 나아가는 모습,

선하고.

## 간판 없는 거리\*

언 손을 녹이려 뺏은 내 영혼은 짙고  
매듭 풀린 신발 끈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마주 오는 자전거가 참 다정해서  
우린 결코 부딪힐 수 없어요  
녹이 슨 펜스 너머 창유리도 없는  
공사중단 건물 한 채 흐린 눈을 감았다 뜨며  
변화하는 주변을 다 잊으려고, 꿈인가  
그러나 꿈 아닌 현실에겐 할 말이 더 없어 손을  
내밀죠 이곳저곳 툭, 툭, 비어진 철근들  
만약, 호주머니 깊숙한 곳  
구겨 넣은 내 손을 찾아 뒤적일 때는  
누구의 손이 필요할까요?  
흔쾌히 자신의 손을 빌려 주겠다는 사람이  
이 도시엔 살지 않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겨울 이불 먼지를 터는 빌라촌의 옥탑 여자  
교차로 위, 당신의 스프레이 표시는 올해도 지워지질 않았고  
부러지지도 않을 그 손목을 잡으면 다들, 어진 사람들\*\*  
날리는 거위 털인지 첫눈인지 시리도록 흰 이것은  
오래전 내가 보낸 나에게로의 응답인 것만 같아  
숨을 죽여요, 누구인가 나를 찾고 있을 거라는 확신  
은 없지만 잠시간 그에게로 귀 기울이자면, 들려요?  
도시의 소음이에요 전류를 흘려보내는  
소리랍니다, 들리죠?  
퇴근 후의 적막 속을 밝혀 줄 때는 TV의 환한 빛이  
잠든 밤 꿈에서는 라디오의 교향곡 되어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전기 소리, 저녁 도시의 찌릿한 맥동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를 뜬소문처럼 가로지르며  
눈 밝은 땅거미 하나가 이 도시를 엮어 가고 있네요  
초겨울,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앞당겨진 일몰 시각에 맞춰서 들어오는  
다정한 가로등 불 아래 우린 모두 조금씩 수상해지고  
당신들 뒤를 따라 걷는 게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발이 짹짹 달그림자가 되어 뽀뽀.

\* \*\* 윤동주, 「간판 없는 거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고  
그렇게  
그리워했다.

너의 말은 그쯤에서 끝난다.

그 후, 이따금 씨가 된 말들이 우리 발밑에서 짹을 틈을 때도 있었지만, 뿌리내리던 자연의 힘이란 너무도 강해 커다란 바윗돌까지 부서뜨리며 악을 쓰기도 하였지만, 점점 먼 곳으로 밀려났지만, 우리 있던 공터는 곧 무성한 숲이 돼버렸지만

숲의 고요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이유입니다.

오늘부로 시에서는 산림과를 증설하여 탄력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산림과 증설은 결사반대!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피켓을 든 지역의 조합원들이 시청 앞을 막아섰지만, 나날이 숲은 푸르고 아름다워질 줄 밖에 몰랐다.

매일같이 실의에 빠진 너는 말을 잃었다.

태초에 어느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을 느낀 그대로 표출했던 것뿐. 이것은 네 마지막 유언이 됐다. 세계는 말이 없었다.

바깥으로 대오를 이루어 성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너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창과 문을 닫아도 목소리는 들렸다. 돌아누운 네가 여전히도 말이 없어서

나는 벌목공이 된다.

네 방 여기저기 우거진 그 침묵들을  
베고  
나르고  
덤불처럼 쌓아두었다.

시위대가 문을 부수고서 네 방으로 들이닥쳤을 때, 노동은 완결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물었다.

진박새 몇 마리 매트리스 위에 쌓인 침뎀불 속에 들어앉아 작게, 지저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행복협동조합에서 나왔다고 했다.

말 없는 내 친구의 불분명한 말없음이 도시의 밝은 미래를 야금야금 해치는 중이라 했다.

그래서 그랬고

그렇게

그리워했음,이 네게 있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꼭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들은 말끝에다 그렇게 덧붙이며 방을 떠났다.

더 이상의 분명한 것들은 분명하게 말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이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도 남아 있었다. 어두워진 창밖으로

변함없이 분명한 단 한 그루 나무가 종말처럼 자라나고 있을 뿐

거대한 세계수는 공터의 중심에서부터 시와 시의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곳곳으로 그늘을  
뿌리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그 밑동에 기대앉아 입을 오므려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언젠가 네가 떠나보냈던 철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둘,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어  
깨가 둘셋, 무거워지는 것 같다. 척척한 발들. 음악들.

스르르 너의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